

2020년 4월 12일 부활생명은 죽음을 통하여(막 16:9-18)

<도입>

요즘 서로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서로를 향한 현재와 과거의 사랑이 느껴질 때 새롭게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교제를 갖는 사람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예기치 않았던 행복이 따라오고, 생명의 교통하는 살아있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 볼 수 없어도 이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분과의 축복의 관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살아남으로써 죽으신 몸의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1] 부활 후 나타나신 주님

9~14 절 '보이시니' '보이셨다' '나타나시니' 나타나사' '본' -> 몸으로 나타나심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셨을 때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12 절, 14 절 참고).

그리고 14 절,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 11: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니라'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 주님의 거센 책망을 의미.

주님의 의도는 그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죽으시기 전과는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자기 식의 관점이 고정되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제언과 요구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할 영적 진보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정체상태에 있을지라도 새 삶을 향한 지평을 말씀으로 열어 주십니다(15 절 이하).

(1)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2)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 ㄱ. 축귀; ㄴ. 새 방언; ㄷ.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음;
- ㄹ.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

->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열리는 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2] 부활 생명을 사는 삶

먼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온 천하'는 땅끝(행 1:8)을 말합니다. 당시 온천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를 유일한 숭배의 대상으로 선언하는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땅에 많아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창 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취될 때가 왔음을 말합니다.

창조 후 타락 전의 땅(창 2-에덴)에는 귀신들이 세력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찬양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새 방언의 회복). 또한 지금 이 땅에서는 해를 끼치는 짐승이지만 거기서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며 선한 조화를 이루는 존재였습니다(사 11:6-9 참고). 거기에는 병듦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인간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참 왕이심을 인정할 때, 태초의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평강(shalom)이 주장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 세계를 열어 주시기 위해

부활의 새 몸으로 나타나셔야 했고, 부활을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삿이었기 때문입니다.

[3]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란 죽음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삶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누구의 죄이든지, 그 죄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죽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의 죽음,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의 죽음, 쓸데없는 자기 비하로부터의 죽음, 적개심, 분노로부터 죽음, 컨트롤 이슈로부터의 죽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죽을 수 없다고 정당화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완악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에 집중할 때, 내면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대개 우리는 나의 내면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한 고비를 통과하면 내 안에 진실과 선함이 싹트는 좋은 내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선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까지 장악하셨다는 것입니다. 계 1:18 후 "...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권세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 자아의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놀라운 부활 생명의 풍요가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주님의 부활은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줄까요?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역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2. 내가 제자들처럼 완악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을 성찰하며 써 보시기 바랍니다.